**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3장 1-9절>

1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1:23)는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1:12).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14:18).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막13:26).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계1:7). 하지만 그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계21:3-4).

이처럼 과거에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현재도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미래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천 년 전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를 뽑아 오늘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던 이 옛사람 세례요한의 말과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메우고,’ ‘깍아내리고,’ ‘반듯하게하고,’ ‘평탄하게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높은 교만 속에 있는 사람도, 굽은 위선 속에 있는 사람도, 험한 역경 속에 있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은 빈 들로 나갑니다. 빈 들에 뭐가 있어서 나갔을까요? 아니요, 뭐가 없어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실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한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베리우스나 헤롯과 같은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계를 대표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서 잠잠히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영을 호흡할 때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과 영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은 너무 시끄럽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무절제하고 혼탁해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처럼 작정하고 빈 들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다 수도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빠져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잠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참으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합니다. 그 잠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참으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잠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내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또한 구하게 합니다.

빈 들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은 시간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 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깝고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골방과 빈들로 나아가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빈 들에서 세례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3-3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느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성령이 내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요단 강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속하는 길은 성전에서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물세례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베풀어졌는데, 여기서 세례는 더러운 상태에 있는 이방인을 씻겨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죄에 있어서 만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한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또 철저히 지킨다는 것, 내가 성전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처럼 높아진 민족적, 종교적 특권의식을 요한은 사정없이 “깎아내립니다.” 그와 같이 교만한 마음과 태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종교지도자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급기야 그분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길 위에 놓여있던 그 특권의식을 그들이 미처 치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는 특권의식이 없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죄에 무감각한 삶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더 이상 죄에 대해 슬퍼할 필요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믿는, 또 하나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 의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으며, 우리를 거듭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회개는 죄 사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자,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칠 죄가 없는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거든, 귀인을 맞이하기 위해 높은 산을 깍아내리듯이,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케하듯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뱉고 다시 성령을 들이마시는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즉, 회개의 진정성은 변화된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입증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심스럽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벌금을 뜯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시 박봉의 군인들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경제적 쪼들림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던 세리가 오직 부과된 것만을 거두며 살자면 가슴이 쓰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들에게서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내고 로마권력에 열심히 줄을 대어 세리장의 지위까지 올라갔을 그가, 그의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의 오심이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그리하여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며,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다른 모든 영역의 샬롬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다른 준비할 것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사십시오!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빈 들로 나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저희에게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회개, 변화된 삶의 열매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